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 메달 레이스 돌입

9월 11~16일 제주 개최... 11일 월드컵경기장서 개막식
31개 종목 9000여명 참가... 7개 종목 도내의 사전경기

다음 달 11일 개막하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사격·사이클 등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본격 메달 경쟁에 들어갔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오는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강창학종합경기장 등 도내·외 39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제주에서 개최되는 첫 전국장애인체육대회로, 전국체육대회보다 먼저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 31개 종목에 17개 시·도 선수단과 임원·관계자 등 총 9141명이

참가해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감동의 드라마를 선물하게 된다.

경기장 여건상 제주지역에서 열리지 못하는 사격과 사이클(트랙) 등 7개 종목이 사전경기로 치러지면서 전국 17개 시·도의 메달 레이스가 시작됐다.

사격은 지난 17일부터 20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31개의 메달 주인공이 가려졌고 사이클은 25일부터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이틀간 열린다. 사격에서는 세종시가 10개의 금메달과 4개의 은메달을 가져갔고 제주는 열악한 선수층으로 인해 1



개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도 사전경기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돼 본격적인 전국장애인체전의 서막을 알리게

된다. 농구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라체육관, 럭비는 다음 달 9일부터 이틀간 구좌체육관, 테니스는 다음 달 9일부터 10일까지 공천포테니스장, 볼링은 다음 달 10일 한림체육관에서 열린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식은 다음달 11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며 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은 내달 1일 제주장애인스포츠펀드에서 결단식을 갖고 메달 획득을 위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브레이크댄스 추는 로봇 25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에서 브레이크댄스 경연이 치러지고 있다.

유해란·김효주, LPGA 3승 재도전

FM 챔피언십 28일 개막... 상위 랭커 총 출전

일주일의 휴식을 취한 세계랭킹 3위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3승에 재도전한다.

유해란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TPC 보스턴(파72)에서 개막하는 LPGA 투어 FM 챔피언십(총상금 440만달러)에 출전한다.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PGA 챔피언십과 아문디 예비앙 챔피언십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했던 유해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시즌 3승을 노린다.

유해란은 올 시즌 '선택'과 '집중'으로 대회 일정을 조절하고 있다. 부상으로 몸 상태가 무너지거나 체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휴식을 취하며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그는 지난 5월 크로거 컨시더 대회에서 준우승한 뒤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길에 올랐고, 6주 만에 복귀한 뒤 메이저 대회 2개를 연거푸 우승했다.

이후 유해란은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공동 6위)과 지난 17일

끝난 스탠더드 포틀랜드 클래식(공동 25위)에만 출전하면서 컨디션을 관리했다. 스코틀랜드 여자 오픈과 CPKC 여자오픈은 건너뛰었다.

FM 챔피언십은 2024년 처음 시작됐으며 초대 챔피언이 유해란이다. 2년 만에 다시 정상에 도전한다. 최근 주춤한 김효주도 다시 힘을 낸다. 김효주는 6월까지 출전한 9개 대회에서 우승 두 차례, 준우승 한 차례, 3위 한 차례를 차지하며 무서운 기세를 보였다.

LPGA 투어뿐 아니라 지난 5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지난 달 롯데 오픈에서도 우승컵을 들었다.

하지만 벅찬 일정 탓인지 최근 흐름은 다소 주춤하다. 최근 출전한 LPGA 투어 5개 대회에서 모두 10위권 밖의 성적을 냈다.

김효주는 이번 대회를 반동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한편 이번 대회엔 세계랭킹 상위 10명의 선수가 모두 출전 등록해 치열한 우승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소희(오른쪽)와 백하나가 25일 귀국한 뒤 취재진에 금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소희·백하나 '금의환향'

2026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여자 복식 31년 만 '금메달'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복식에서 무려 31년 만에 대한민국에 금메달을 안기며 긴 우승 갈증을 풀어준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 조가 값진 결과와 함께 더 큰 자신감을 안고 돌아왔다.

인도 뉴델리에서 끝난 2026 세계

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이소희·백 하나는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 만나 “오랜만에 그것도 세계선수권이라는 큰 대회에서 우승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한때 12주간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수성했던 '전직 챔피언' 이소희·백 하나는 이번 대회 '깜짝 우승'으로 그간의 아쉬움을 완벽하게 씻

어냈다.

한국 여자 복식 조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것은 1995년 스위스 로잔 대회의 길영아·장혜옥 조 이후 31년 만의 쾌거다.

특히 이소희는 2014년과 2021년 신승찬과 호흡을 맞춰 각각 동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금메달로 세계선수권대회의 세 가지 색깔 메달을 모두 수집하는 진기록을 썼다.

어느덧 서른들의 베테랑이 된 이소희는 “마냥 꿈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세계선수권 우승을 이뤘다는 게 무척 의미 깊다”며 “하나 덕분에 32살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다.

백하나 역시 “저는 세계선수권 메달이 하나도 없어 내심 걱정했는데, 언니가 너무 잘해준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결승전 상대였던 세계 1위 류성수·탄닝(중국) 조를 상대로 최근 5연패의 늪에 빠져 있었던 이소희·백하나 조는 이번 결승전에선 시종일관 경기를 압도하며 빈틈없는 플레이를 펼쳤다. 그결과 51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1-15)으로 제압하며 최근의 연패를 통쾌하게 설욕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국정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시사기획 창(재)	6:05 TV 유치원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7:30 굿모닝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목양의 딸(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국정 스페셜 11: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이 좋아(재) 스페셜 11: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11:45 배베면(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북 8:50 종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열린TV 시청자 세상	8:20 어린 철학자 9:20 도전 AI 해결단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왔다! 내 손주 13:05 EIDF 2026 16:55 수상한 방송국 17:2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Z 18:20 고향민국 19: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킹 특선 지명수배 14:00 KBS 뉴스 14 14:10 열린세상 14:50 어린이동화타이(재) 15:20 인생이 영화(재)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3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히어로 인사이드(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영상앨범 산(재) 17:00 마자레니 4 17:15 프린세스 캐처 티나핑 17:30 풀럼 영화가 좋다	12:00 12 MBC 뉴스 12:25 얼마를 부탁해(재) 13:25 최고의 호기심 딱지(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PD수첩(재)	12:00 SBS 12 뉴스 12:45 위시켓 매직카드 13:00 보석아내 건강 수다(재) 14:00 뉴스브라질 15:30 아토피탈탈탈 16:00 네모세모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문화예술인 제주	9:00 KCTV 9시 뉴스 10:00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인사문화 13:00 KCTV시청자 세상 15:30 지역이 듣고 국가가 답한다 16:00 주춤여행 오징어보고 17:20 수줍음 17:50 어쩌다 어른 19:30 황금어장 20:00 책 읽어주는 나의 세계 21:30 인터뷰 제주를 말한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지역 소릴 극복 프로젝트 우리 동네 20:30 일일드라마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이슈 픽 앤드 함께 스페셜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목양의 딸 20:30 슈퍼맨이 돌아왔다 21:50 볼주르뱅집 23:10 실랑이는 남자들(재)	18:05 애들은 가라 1호점 19:05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김구 탄생 150주년 특집 발품사 22:30 라디오스타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원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50 토크 나면(재)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구의 야영기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토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6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을유 또는 밤 늦게 귀가하면 불리하다. 48년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자제하며 사생활을 논하지 마라. 60년 타이밍이 맞으면 호재, 신중함이 필요. 투자도 타이밍이 있다. 72년 부모나 처의 도움이 있다.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투자하라. 84년 좋은 만남 또는 소개가 있다. 기본으로 좌우되는 것은 금물.

37년 오늘을 유쾌하게 보내려 노력하라. 49년 늦게 귀가하면 불리. 가정에 불화가 온다. 61년 연변, 말로 하는 작업은 인정받고 수익 중대. 73년 주변정리 또는 정돈이 일을 향상 시킨다. 사업장 주변을 깨끗이 하라. 85년 불투명한 오늘보다 계획있는 미래설계 필요하다.

38년 두통이나 신경성 질환이 온다. 재물과 관련된 일이 발생한다. 50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나 베풀수 있는 기회가 온다. 62년 일이 앞에 산적해 있다면 미루지 말라. 74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는 듯하나 방해자가 생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경계하라. 86년 평생교육을 통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준비할 것.

39년 사사로이 감정이나 오후로 인정하니 주의하면 해소된다. 51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吉. 63년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이익이 생긴다. 계약건은 시간 활용이 중요. 75년 항상 성실한 마음을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내일에 전념하라. 87년 전문직은 이익이 따르고 직장인도 인정받는다.

40년 아랫사람의 도움이 있거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긴다. 52년 거래나 계약관계로 몸이 분주하고 소식이 찾아온다. 64년 부부간에 논쟁이나 고부갈등이 있을 수 있다. 76년 집안에 환경변화를 주거나 내일을 해 보려고 주변과 상의한다. 88년 상대를 먼저 배려함이 나를 인정받게 한다.

41년 재물에 이익이 생기거나 인심 쓸 일 생긴다. 53년 타인과의 비교함은 상대와의 다툼이 되니 언행 조심. 65년 시비나 구설이 오거나 주변 일에 참견은 자제하고 충고를 지킬 것. 77년 생각이 복잡하고 결정은 어렵다. 상의하거나 교육현장에서 정보를 활용하라. 89년 명상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가 되길.

42년 시해, 처가 문제 또는 자녀로 인한 격정이 생긴다. 54년 고집과 자존심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존중과 화합을 병행하라. 66년 구매통통이 생기고 외출할 일이 생긴다. 79년 서두르면 일이 안풀리니 신중하라. 특히 금전 대충은 불리. 91년 가족간 의사 소통에 역할을 하거나 리더십이 요구 되는 날.

43년 평소의 방식보다 새로운 방법이 이득이 될 수 있다. 55년 분실 또는 실수가 있으나 금전 또는 지갑보관을 잘 해야 한다. 67년 구매충동이 생기고 외출할 일이 생긴다. 79년 서두르면 일이 안풀리니 신중하라. 특히 금전 대충은 불리. 91년 가족간 의사 소통에 역할을 하거나 리더십이 요구 되는 날.

44년 도움이 있으나 마음이 바쁘고, 몸이 분주하다. 결과가 있다. 56년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나 다툼이 오거나 금전거래는 보류. 68년 재물 손재수가 있다. 외출시 문단속 철저, 현금 과다 지참 금지. 80년 의욕, 자신감이 저하되고 새로운 변화를 원함. 92년 청춘을 아끼지 말고 관대한 마음으로 화목을 도모하라.

45년 슬픔을 나누거나 기쁨을 축하해 줄 일이 생긴다. 57년 재물운이 길하다. 부모나 처, 시어머니의 도움이 크다. 69년 남의 일에 간섭은 나에게서 곧 망신이 된다. 참견하는 일은 자제. 81년 업무나 성과에 대한 칭찬을 듣는다. 93년 불만이나 원하는 것은 가슴에 묻지 말고 말로 표현하라.

46년 자리를 함께하며 음식을 나눌일이 생긴다. 58년 생각이 많고 갈 곳도 많지만 마음은 허전하다. 70년 업무나 취업에 대한 생산성있는 소식을 접한다. 재물운이 길하다. 82년 투기나 도박에서 불리하다. 경마 도박에는 관심 갖지 마라. 94년 활동이 많고 자녀에 관한 일로 분주. 외부 활동에서 이익이 온다.

47년 업무과다에 따른 스트레스가 따른다. 도움을 받아라. 59년 급박한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여유가 필요하다. 조급함이 실수를 부른다. 71년 자녀문제나 처가의 사소한 일로 가정불화. 83년 부모님이나 윗분들의 충고가 있으니 삶의 지표로 삼자. 95년 상대자와 인정이나 다툼은 피할 것. 자랑하는 일은 불리.